



지역의 재발견

결심

최 흥

스피치라이터 동양증권스피치컨설팅연구원장

희망찬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북 도민과 새전북 신문 구독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큰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성적을 좀 더 올려서 목표한 대학에 꼭 합격 하고 말겠다는 고3 수험생의 다부진 결심도 있고 백해무익이라는 담배를 끊어서 금연을 실천 하겠다는 결심이 있는가 하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집 값 때문에 이번만큼은 약값까지 노력해서 집 값 걱정 없이 살겠다는 아무진 결심도 있고 취직을 위해서는 영혼도 팔겠다는 청년들의 절규 어린 외침처럼 취직하여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당찬 결심도 있습니다.

포기 하지 않는 굳은 결심으로 목표 이루어야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참으로 힘들고 절망적인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 계획했던 굳은 결심은 불 눈 녹듯 사라지고 제대로 해놓은것도 없는데 훌쩍 한 해가 버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약값까지 살아보겠다고 일 했지만 무심한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가벼웠습니다. 더 걱정 인 것은 올해도 작년과 별반 다를것이 없을 것 같아 괜히 새해인데도 우울해지는것만 같아 마음도 착잡합니다. 쉽게 끝날 것 같은 코로나와 오미크론은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그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가슴은 숨가쁘게 타들어만 갑니다. 가족 같은 직원들 눈물을 머금고 다 내

보내고 인건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온 가족이 장사를 해도 한창 영업 시간에 문을 닫아야하니 장사가 될 리 없고 스쳐가는 찬 바람만이 더욱더 몸을 움츠리게 합니다.

장사가 잘된다고 직원들 보너스 주고 소리 내어 웃어본적이 언제인지 요즘은 웃음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한숨 소리가 무거울뿐입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있는 것은 분명 맞는거 같습니다. 국내 조산업은 전 세계 발주 물량

다보니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 될 지역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열 받는 것은 전북은 강원,제주와 함께 전국 광역지 자체간 메가시티 육성 사업에서도 배제 될 처지에 있어 딱한 입장이며 남원 공공의대, 제3공용지정중심지 등 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 많은 실망을 하고있습니다.

이제 도민들은 큰 결심을 해야합니다. 변방의 미미한 전북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전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광활한 새만금에 우수한 기업들을 혜택을 많이 줘서 유치하고 하루빨리 신 공항을 완성하여 동북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결심하면 할 수 있습니다.

포기 하지 않는 굳은 결심으로 목표를 꼭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대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 과연 이 전북을 위해 사심 없이 일 해 줄 후보가 누구인가 냉철히 판단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이 낙후된 전북을 기회의 전북으로 만들 후보에게 꼭 투표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않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 전북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춡다고 웅크리지 말고 따사한 햇빛의 여유로움과 향긋한 커피 한 잔 하면서 그 래도 세상은 노력 한 만큼 결심을 맺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않습니다.

독자의 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 범죄입니다

우리는 IT강국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각종 범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비롯한 촬영기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성적추

침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을 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으면 강간죄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 수 있지만 20년 동안 신상 정보 등록이 되어 경찰서에 1년에 1회씩 신상정보 갱신을 해야 하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 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행동임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과한 일들을 벌이다가 평생 성범죄 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아주 평범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사사로이 생활이 범죄자로 낙인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사회 4대악으로 인식하고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전주완산경찰서 기동순찰대)

독자의 편지

‘누군가 지켜보고있다’ 난폭운전 이제 그만

누군가 “당신은 감정적인 사람이네요”라고 얘기를 했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떤가? 아마 그리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어느 누구도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함에도 “당신은 이성적인 사람이다”라는 표현에 비해 그리 호감가는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도덕적·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사람들의 구설수에는 오를 뿐, 감정적이라 해서 공권력에 의해 제재 받는것도 없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감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특정인 차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보복운전'만이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도로 위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 위험을 안기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여 최대 징역 1년의 형사처벌과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경찰청은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을 난폭운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방문 신고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마련하고, 국민신문고 신고도 가능하게 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두가 즐거운 여행길이 되기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문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김형진(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안전불감증 개선, 나부터 실천하자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빨리빨리 라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전의식은 현재 기술 수준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분명 문명의 혜택으로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큰 위험도 존재한다. 가끔 우리는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 편리함을 누릴수록 더욱 더 기분을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이 대형 사고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수년 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에서부터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 이 모든 사고가 우리들의 안전 불감증과 안전의식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한 참극이다.

대한민국은 대형 사고를 겪으며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생활 곳곳에서는 '안전 불감증'이 남아 있고, 안전의식이 부족한 모습도 곳곳에서 자주 목격된다.

'대한민국은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일시적으로만 '안전불감증'을 논했다가 얼마 지나면 잊어버리는' 중증 안전불감증을 겪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그 원인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

안전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

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설마 나는 괜찮겠지' 같은 안전불감증이 모든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누구나 실수를 한 번 정도는 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사고 일수도 있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듭된 훈련과 교육,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특히 나 자신부터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안전불감증은 본인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 속 깊숙이 침투해 있다. 자신이 안전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안전의 위험성을 우열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

이미 우리사회에서는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 안전의식의 부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끊어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것이다. 어린학생부터 노인까지 성숙한 안전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일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특히 나 자신부터 사소한 원칙을 지키며 변해야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제거 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김재현(여수소방서 평어119안전센터)

새전북신문 www.sjnews.com 5491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 새전북신문 BD

발행·편집인 박명규	인내 / 063) 230-5700	FAX / 063)231-8327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원
인쇄 우순금	광고 / 063) 230-5714	구독&독자서비스부 / 063) 230-5712	
	재보 사취부 / 063)230-5850	경제부 / 063)230-5840	문화교육부 / 063)230-5818
	정치부 / 063)230-5821	사실팀 / 063)230-5842	지침행정부 / 063)230-5840

2000년 10월 25일 창간(등록일자 : 2000년 10월 23일) 등록번호 전북가-0004(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 정보·투고 | 홈페이지 sjnews.com/kyun-ite/독자투고 게시판 | 이메일 sjb252@gmail.com

구독 신청 안내

063) 230-5712

중부	인후1동, 인후2동 일부, 인후3동/노동부 청사, 전주고려병원, 인후위보아울림, 인후 한신휴, 유일여고, 기린초, 인후초, 아중리 일대. 010-8640-6855 / 246-6855	서부	경원동, 고사동, 중암동, 고동, 전동, 진북동, 봉남동, 다가동, 태평동, 서노송동/ 전주시청, 덕진구청, 시교육청, 완산경찰서, 한옥마을, 중앙시장, 남부시장, 동국해성, sk뷰, 혁신도시 010-9397-2328 / 273-1008
서전주	서신동, 효자동4가(서곡지구)/ 롯데백화점, 이마트, KT전북본부, e편한세상, 서신초, 한일고, 서신중, 전주서중, 여울초, 서일초, 서신동 일대. 010-6278-5085 / 276-0034	중화산	효자동1가 일부, 효자동2가~효자동4가, 중화산동/ 도청, 경찰청, 효자신시가지, 전주대, 비전대, 전주박물관 010-2799-1237 / 237-5863
평화	평화동1가~3가, 동서학동, 서서학동/ 전주교대, 전주교도소 010-8883-5498 / 010-8858-9456	효자	효자동1가 일부/ 삼천1동~삼천3동, 상산고, 서도프라자, 해성고 010-8883-5498 / 010-8858-9456
덕진	인후2동 일부, 송천동, 덕진동, 호성동, 금암동, 전미동/우아동1가, 우아동2가, 전복대, 전북대병원, 고숙터미널, 전주역, 전주동물원, 전라고, 솔나고, 우아동3가, 용진동, 완주군청 010-4611-8069	완주	봉동읍, 삼례읍 봉동 지역, 3광단 010-8824-9388 / 010-4013-4853
팔복	팔복동, 동산동, 여의동, 반월동, 장동, 조촌동, 고령동, 성덕동, 만성지구/ 덕진경찰서, 월드캠경기장, CBS전북방송, 전주한지박물관 010-8627-6325 / 214-0300	 새전북신문 THE SAEJEONBUK SHINMUN	
남전주	중화산동1가, 중화산동2가 일부, 완산동/ 예수병원, 전주병원, 신흥중, 신흥고, 기전대학, 화산체육관, 근영여고, MBC, 화산공원, 중화산공원, 석정수헬리스, 남양왕실, 한신휴 010-8883-5498 / 010-8858-9456	군산	군산시 전역, 소룡동, 신북동 010-2520-9593 / 010-9850-7734
		익산	익산시 전역 010-6687-7734
		김제	김제시 전역 063-548-8866
		정읍	정읍시 전역 010-9624-9913
		고창	고창군 전역 010-6608-6842
		임실	임실군 전역 010-3208-2846
		남원	남원시 전역 010-9068-3077
		무주	무주군 전역 010-6823-2085 / 322-5005
		진안	진안군 전역 010-2433-1721 / 433-8291
		장수	장수군 전역 010-8765-5006
		순창	순창군 전역 010-5612-7239
		부안	부안군 전역 010-7247-3947

새전북신문이 쓰는 大韓民國이 읽습니다.